

# 정청래, 지방선거 준비 점검... “李정부 성공” 시대정신 일궈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첫 과제”라며 시·도당 차원의 분발을 독려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시·도당 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5년의 시대정신으로 “내란을 극복·청산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꼽았다.

이어 “두 번째 시대정신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내란 극복, 내란 잔재 청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면 이 시대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일궈내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선 승리를 위해 “국민께 헌정이 신뢰와 믿음을 주는 든든한 민주당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라며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민생적이고, 가장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후보 선출 과정 또한 가장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일부 힘 있는 실력자나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던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공천혁명·선거혁명을 시작한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1차 예비경선 100% 권리당원 경선으로 치를 것”이라며 “본경선도 권리당원 50%에 일반국민 50%”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이번엔 실험한다”라며 각 시·도당 기획단에 “공천혁명·선거혁명의 방

“기초·광역의원·단체장 예비경선 100% 권리당원 경선... 공천·선거혁명”  
“본경선은 권리당원 50%에 일반국민 50%... 민주적 절차 상향식 공천”  
“민심 파고드는 정책 개발... 국민 원하는 맞춤형·소확행 공약 찾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뉴스1

향에 맞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17개 시·도당 지방선거기획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

민이 원하는 맞춤형 공약,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많이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6일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등 1차(예비)

경선은 당원 100%, 최종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국민이 50%씩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는 경선 원칙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해당 내용 당무위 의결도 마쳤다. /뉴스1

## 생일날 군사법원 출석한尹, 계엄군 장성에 “안타깝고 미안해”

### 비상계엄 관련 임시 조치였다는 기존 입장 되풀이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에 용산을 찾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 장성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생일날인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중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척한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선서 이후 자리에 착석했다. 윤 전 대통령 정면 우측 피고석에는 광종군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이들의 변호인들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수많은 군인이 구속돼 수사받고 인사조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여 전 사령관 측 물음에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걸 보고 안

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이라며 “미안한 생각이 들고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기도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방첩사 인사 조치에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에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앨 순 없는 것 아닌가”라 반문하며 “방첩사는 이번 일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걸 빌미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무도한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국회 통제 등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광종군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중사 혐의 등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1

에 대해 국민들에게 복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아무리 길어도 만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군 검찰과 신검정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 앞서 “검찰 측이 생각이 다르면 위증 기소를 남발한다”며 “증언을 거

부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군검찰이 ‘과한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게 질문하면 앞으로 검찰 질문은 다 거부하겠다”고도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대통령실 청사와 불과 200여m 떨어진 영내에 위치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용산을 찾은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뉴스1

## 대통령 - 광주시장·전남지사 군공항 합의에 SNS덕담 눈길

李대통령 SNS에 “대화와 연대로 드디어 해법... 각별한 의미”  
강기정·김영록 “대통령 보증 덕분”, “균형발전 철학·의지 덕”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통합 이전 합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광역단체장들 간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덕담이 눈길을 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6차 테스크포스(TF) 합의가 이뤄진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다”며 “수 많은 갈등과 우려, 이해 관계가 얽혀 난항을 거듭하던 군공항 이전이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루내고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목소리를 존중해 함께 답을 찾아낸 뜻 깊은 성과로,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안이였기에 더욱 각별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를 언급하며 “각고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지역민들에게도 “긴 시간 인내하며 지혜를 모아주신데 대해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댓글을 통해 “대통령님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강 시장은 “무려 18년 간 갈등과 반복으로 영겨 있던 통합 공항 이전의 실마리가 풀렸고,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답은 신뢰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든든한 보증인으로

나서준 덕분에 끝이 보이지 않던 불신의 악순환이 끝났다”라며 거듭 감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6차 TF에서 논의된 ‘통합 이전 로드맵’은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계획 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첨단물류, 관문공항까지 광주·전남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기회”라며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댓글로 “한 없는 감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어려운 난제를 지역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나서주셨고, 대통령의 균형발전 철학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치켜세웠다.

또 “2007년부터 18년 간 해결하고자 했던 해묵은 숙제가 풀린 역사적 쾌거로,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새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안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명칭변경이 되는 부분도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 군공항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박근택 의원은 “20년 가까이 미 해결 숙제였고, 지역 정치인들을 불신 받게 만드는 대표적 비판거리였는데,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셨다”며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가장 큰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폐복글에는 하루 만에 6000여 개의 ‘좋아요’와 8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광수 기자

## 나주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제9대 나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 마쳐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8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11명이, 제5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보증질문을 하는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1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이재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9대 나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라며 “때로는 의견이 맞았고, 때로는 밤늦도록 해답을 찾는 그 모든 과정은 이 지역을 향한 진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믿는다”고 말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유지가 확정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언급하며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나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